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다!

세아특수강 물류자재팀 신재운 과장
계속된 도전에도 지치지 않는 끈기와 열정,
그를 세아특수강의 보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세계
의
리
트
리
트

천재 화가이자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다재다능한 세아특수강 물류자재팀의 신재운 과장.
그의 도전은 어려움 앞에서도 멈추는 법이 없다.
불도저같이 끝 없는 그의 도전은 늘 현재진행형이다.





처음 그 때처럼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첫 출근을 준비하던
그 아침을 기억하시나요?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던
그 아침의 열정과 다짐.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걸음을 옮기던 출근길.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때문에
처음 그 마음을 잠시 잊지는 않았나요?

오늘 아침,
처음 그 떨림을 떠올려봅시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Vol. 338
MARCH | APRIL 2012



FOCUS ON

- 02 **Hot&Issue**
 - 세아베스틸, 경남 창원에 제2공장 건설 추진
 - 세아에셋, 한국노사협력대상 우수상 수상
- 04 **SeAH Special Report**
 - 세아제강, SPP강관 인수
 - 세아메탈, 원주 제2공장 건설 착수
 - 세아 M&S, 생산력 확대로 경쟁력 확보
 - 4기 챌린지 리더 수료식
- 12 **Open Your Team**
 - 드림라인 서부지사
- 16 **SeAH Super Star**
 - 세아특수강 물류자재팀 신재운 과장

IMAGINE SeAH

- 20 **프롤로그**
 -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 22 **뿌리 깊은 나무**
 - 조조의 용인술(用人術)
- 24 **테마 인터뷰**
 - 세아제강 하재우 대표
- 26 **테마 스토리**
 -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 28 **우리말 바로쓰기**
 - 좌충우돌 세철 씨의 직장어사전

HARMONY OF SeAH

- 29 **I ♥ SeAH**
 - 세아베스틸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 강남도시가스, '북채움' 독서상자 만들기
 - 세아제강, 국립오페라단 <라 보엠>과 함께
 - 세아홀딩스,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2 후원
 - 세아베스틸, "희망나눔 후원 계좌제"
 - 세아특수강, 사랑의동전모으기
- 38 **지구촌 별별사람**
 - 같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짜조' 같은 베트남의 매력
- 40 **어느 멋진 순간**
 - 세아베스틸 래남 4인방의 봄나들이
- 44 **세아뉴스**
- 47 **사우동정**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아 가 족
세아그룹 가족들을 위한 사보

<세아가족> 통권 338호 2012년 03+04월호

발행일 2012년 4월 10일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홀딩스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3783-8163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표지촬영 다뷰스튜디오 02-766-8025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경남 창녕에 제2공장 건설 추진



세아베스틸이 경남 창녕에 제2공장 건설을 확정하고 3월 2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및 창녕군과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완공 예정인 제2공장 건설로 세아베스틸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국내 특수강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세아베스틸은 제2공장 건설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영남지역 여러 곳을 검토해왔다. 각 후보지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제안한 지역 산업 인프라를 검토한 결과, 지난 1월 말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로 최종 입지를 결정하면서 제2공장 건설 계획을 구체화했다. 입지 결정에는 세아베스틸의 고객사가 창원, 부산, 울산 등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물류비 절감 효과, 그리고 창녕군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의 영향이 컸다. 약 1,900억 원을 투입해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내 20만㎡ 부지에 들어설 제2공장에서는 자동차 및 산업기계용 소형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군산공장에서 반제품을 가져와 제2공장의 소형 압연 및 정정 라인을 통해 생산한 특수강 소형재를 인근 거래처로 출하하게 된다. 제2공장 건설은 4월부터 착공을 시작해 2013년 5월 완공될 예정이며, 연간 54만톤의 특수강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된다. 향후 추가 투자 검토를 거쳐 2015년까지 총 약 5,000억 원 가량이 투입될 계획이다.

특수강 봉강시장은 주 수요 산업인 자동차, 기계, 건설중장비의 활발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2001년 이후 연 평균 10.7%가 확대돼왔다. 향후에도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특수강 수요는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완전가동 체제로 운영되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여건에서는 이러한 시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공급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임가공 추진만으로는 원활한 공급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세아베스틸이 생산하는 특수강 봉강의 국내 총 수요는 2011년 311만t 수준으로, 이 중 세아베스틸이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27%는 수입에 의존한다. 세아베스틸은 이번 제2공장 건설을 통한 생산 설비의 증설로 국내 특수강 봉강시장의 확대와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2015년 매출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아에샵 한국노사협력대상 우수상 수상



세아에샵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가 주관한 2012 한국노사협력대상에서 중소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해온 세아에샵은 이를 주춧돌 삼아 노사가 올바른 기업문화 만들기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2월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회관에서 산업현장의 건전한 노사협력체제 확산을 위해 2012년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시상식에는 이희범 경총회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1985년 회사 설립 이래 한 차례도 노사분규 없이 무분규 전통을 지켜온 세아에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적 노사문화 확립에 대한 경영진의 일관된 의지로 각종 근로 복지 향상에 힘쓰며 이번 수상에 이르렀다. 노사협력대상은 노사 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6개 항목을 평가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심사는 실무 심사와 경영계, 노동계를 대표하는 저명인사 7인으로 구성된 본 심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세아에샵은 매 분기마다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노사 간의 소통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며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에 주력해왔다. 연 평균 5회 가량 마련되는 이 노사 간 소통의 자

리는 노사의 불만과 고충을 사전에 파악해 해소하고, 자발적으로 애사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무노조 경영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까지 이끌어내는 노사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생산현장에서는 체계적인 분임조 활동이 노사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해왔다. 지속적인 분임조 활동과 자발적 운영 활성화는 직원들의 불만과 고충을 원활하고 조속한 해결로 유도했다. 또한 전국품질분임조대회에서 1998년부터 총 8회 금상 수상의 결실을 거두며 우수한 노사문화 구축에 한 몫을 담당했다. 노사협력 프로그램과 꾸준한 노사 상생의 문화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 노사 협력의 모범을 보여준 세아에샵은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아제강, SPP강관 인수

세아제강이 3월 21일 SPP강관을 최종 인수했다. 전남 순천 울촌산업단지 내 약 270,000㎡(81,000평) 대지에 자리한 SPP강관은 총 4대의 조관설비를 통해 연간 27만t의 후육 대구경 강관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글: 세아제강 경영기획팀 국경훈 과장



API와 특수 강관 수요에 주목

세아제강은 1960년 설립 이후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국내 강관산업을 선도해 왔지만, 많은 중소 업체들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가속되면서 내수 시장점유율은 점차 축소돼왔다. 여기에 해양구조물 등으로 시장이 새롭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력 제품인 API 강관도 후육 대구경 쪽으로 수요 추세가 변하자, 기존 보유한 SAW 설비로 수요 대응 한계에 이른 세아제강은 API 수출시장 대응과 특수 강관 분야의 성장을 위해 SPP 강관 인수를 검토하게 됐다. SPP강관 인수로 세아제강은 SAW 방식의 후육 대구경 설비를 확대함으로써 API 수출시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특히 특수 강관을 생산하는 창원공장의 중장기 성장 계획을 가속할 수 있게 됐다. 세아제강 창원공장은 스테인리스 강관, 티타늄 튜브 등 특수 강관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최근 스테인리스 후육 대구경과 티타늄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설비 증설 및 신규 투자를 검토했으나, 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적재나 물류 등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타개할 새로운 투자 방법을 모색하던 중 SPP강관 인수가 긍정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구 분	외 경	두께	길이	생산규모	비 고
Press Bender	62"	65t	13.2m	12만t	7,000t Calibration 보유 (Expander 미보유)
Roll Bender	197"	128t	4.2m (MAX. 36m)	3만t	4-Roll 해양구조물용
Spiral 1	120"	25.4t	50m	6만t	API용(후처리)
Spiral 2	158"	25.4t	70m	6만t	국내 최대 외경
Coating Line	120"		18m	3만t	Outside : 3LPE Inside : Liquid Epoxy
합 계				27만t	

SPP강관의 새로운 이름 '세아스틸파이프'

2011년 11월 SPP강관의 매각 주관사인 중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인수를 제의 받은 세아제강은 12월 27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 2012년 1월 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자율 공사를 하면서 본격적인 인수작업에 착수했다. 최한규 이사를 중심으로 세아제강 직원 10명, 회계법인 6명으로 실사 TFT가 구성되고, 약 2주에 걸쳐 SPP강관의 설비, 자금, 회계, 영업, 인사 등 종합 실사를 단행했다. 3월 12일 주식양수도 본 계약을 체결하고, 21일 잔금 지불을 마치면서 SPP강관이 세아제강의 품으로 들어왔다. 최종 인수금액은 부채 1,205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식 100%를 58억 원에 인수함으로써 총 규모는 1,263억 원에 이른다. 21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SPP강관의 사명을 '세아스틸파이프(SSP)'로 바꾸고, 최한규, 김동규, 류장림 이사와 정연호 감사를 선임했다. 또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한규 이사를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400억 원의 자본금 증자를 단행했다.

중장기 성장 동력과 경쟁 우위 확보 기대

SPP강관의 인수로 세아제강은 중장기 성장 동력과 함께 강관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량적으로 SPP강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연간 27만t의 후육 대구경 강관에 대한 약 3,0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이후 창원공장 이전 계획이 현실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순천공장에서만 6,000억 원대 매출을 내다보고 있다. 한편, 중장기 성장 및 경쟁 전략 차원에서 지속 성장의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창원공장의 물류문제 해결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강관설비의 구성 조정으로 기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ERW 중소구경 API 강관 공급능력에, 후육 대구경 API 강관(JCOE, Spiral) 생산능력이 더해져 전 세계 API 강관의 수요 시장을 대응

할 수 있는 API 종합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강관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하면서 신시장 진출도 가능해졌다. SPP강관 인수와 더불어 포항공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JCOE 20만t 설비 투자가 완료되면, 세아제강은 국내외 약 220만t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국내 강관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무엇보다 SPP강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구조물, 스파이럴 API 및 장척, 코팅 등의 설비들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가능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종합 강관공장으로 회사 성장 견인

세아스틸파이프는 2013년 초까지 강관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아제강에서 수주한 물량을 세아스틸파이프에서 임가공하고 다시 세아제강이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창원공장 이전이 추진될 계획이다. 인수 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과 설비 안정화에 힘쓰고, 기업문화 통합에 주력하면서, 세아제강과 동일한 SAP 시스템과 회계 및 결산 시스템을 도입해 2012년 말에는 세아제강에 합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창원공장 이전이 완료되면 탄소강관뿐 아니라,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티타늄 튜브 등 특수 강관까지 생산하는 종합 강관공장으로 변모될 예정이다. 세아제강은 과거부터 유지해온 업계 리더 위상의 지속적인 확보를 미래 경영의 방향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업장들의 각 특성을 살려 차별화, 전문화하고 그 시너지를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류 철강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나아가, 국내외 구분 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전후방 수요 산업의 기업체 M&A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SPP강관 인수로 세아제강은 그동안 축적해온 경영, 조직운영, 설비 투자 등의 핵심 능력을 내외적으로 알리게 됐으며, 내부 역량 강화에 힘쓰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강한 기업을 향한 행보에도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세아메탈, 원주 제2공장 건설 착수

세아메탈 원주공장이 4월 초 제2공장 건설 착공에 들어갔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호조로 원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랙바(Rack Bar)의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부터 설비 증설을 추진해왔다. 제2공장 건설과 이후 계획되어 있는 추가 생산라인 증설에는 2015년까지 약 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글: 세아메탈 원주 기술개발팀 이준기 팀장



기회와 위기에 대응하는 제2공장 건설

세아메탈 원주공장에서는 자동차 조향장치의 부품인 랙바(Rack Bar)를 생산한다. 조향장치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공장은 2004년 2월 가동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간 자동차 345만 대에 이르는 랙바를 생산하며 내수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주공장은 기회와 위기라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심해왔다. 세계시장 개방화와 세계화 추세로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제품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세계 도처에서 대량 생산이 행해지자, 다국적 기업들이 인력, 자본, 자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하여 생산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비용 절감과 효율 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점차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두루 갖춘 국내 부품 회사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국내 부품 회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 한편, 세아메탈의 최대 거래처인 만도 역시 수급 다변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기회와 위기라는 양날의 칼을 지닌 글로벌 아웃소싱에 맞서, 원주공장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영역을 새롭게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해 원주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열후공정 라인투자가 한창인 제1공장

대지면적 9,794㎡, 연면적 6,938㎡ 규모의 원주공장에서 는 현재 Rack Bar Turning(열처리 전 공정)설비 80여 대와 EPS Rack Bar(열처리 후 공정) 2개의 라인을 통해 반제품과 완제품이 각각 연간 360만 개, 65만 개가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EPS Rack Bar와 Ball Screw Type의 R EPS Rack Bar 완제품의 수요가 증가해 제1공장에 R EPS Rack Bar 1개 라인을 추가 증설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는 R EPS Rack Bar 라인은 두 개의 공정을 하나로 줄여 투자비, 공구비 등 원가 절감을 고려했다. 또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랙밀링 장비와 열처리 후 발생하는 랙거어의 크랙을 육안 확인 하던 것을 ECT 자동 검사기계로 교체하여 인건비 절감은 물론, 검출 효과를 높여 품질을 향상시켰다.

국내 최초 Ball Screw Type의 Rack Bar 생산

여기에 새로운 부품 가공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국내 최초로 생산하게 될 Ball Screw Type의 R EPS Rack Bar 완제품 생산확대를 위해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0월 새롭게 조성 중인 반계산업공단에 16,739㎡ 부지를 매입, 2012년 2월 설계를 마치고 4월 착공에 들어갔다. 오는 6월 말에 완공 예정인 제2공장은 연면적 8,699㎡에 이른다. 이어 향후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기 위해 4,500㎡ 규모의 추가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제2공장은 전체 대지면적 16,739㎡, 연면적 13,200㎡ 규모를 갖추게 된다.

제2공장 건설이 완료되는 7월부터는 기존 원주 제1공장의 EPS Rack Bar와 R EPS Rack Bar 라인을 제2공장으로 이전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추가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제1공장에 남은 Rack Bar Turning 라인에는 건드릴 기계와 CNC 복합 가공기 및 브로치 설비를 추가하게 된다.

이처럼 2015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하여, 제1공장은 Rack Bar Turning과 공작 기계를 이용한 선삭 가공 제품 전용 공장으로, 제2공장은 EPS Rack Bar 및 R EPS Rack Bar 완제품 공장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원주공장은 연간 반제품 530만 개, 완제품 200만 개, 기타 신규 아이템 80만 개 등을 생산하여 연 매출 9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에 맞춘 개발이 활발하다. 경량화 추세에 맞게 무게는 줄이고 강성이 높은 세아메탈 랙바는 우수한 품질에 연비절감 효과도 높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FTA의 수혜로 한국산 부품 구매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공장의 제2공장 건설은 향후 세계시장 진출 기회 확대와도 맞물려 회사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아 M&S, 생산력 확대로 경쟁력 확보

최근 세아 M&S에서는 주요 생산설비 확충작업이 한창이다.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세아 M&S는 지난해부터 배소로와 페로 몰리브덴 설비의 생산력 증강 계획을 단계별로 실행에 옮겨왔다. 이번 설비 증설은 모두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글: 세아 M&S 경영지원팀 조용권 과장

사활을 건 수익구조 개선책

세아 M&S는 국내 유일의 몰리브덴 다단로 배소로를 보유하고 희귀 금속 중 하나인 몰리브덴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제품은 원재료 비중이 92%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FTA 확산과 국제 가격으로 거래되는 무한 경쟁 환경에서 국제 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익 구조가 수시로 변하는 세아 M&S에게 원가 경쟁력은 회사의 사활과 직결돼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세아 M&S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대안으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추진하게 됐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단위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규모 확충 작업은 배소로의 Revamping과 페로 몰리브덴 설비 증설을 골자로 한다.

배소로 Revamping은 설비 성능을 개선하여 배소로에서 1차로 생산되는 산화 몰리브덴을 연간 4,800t에서 약 1만t으로 증강시킨다. 1만t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규모이다. 이를 통해 단위 생산원가를 약 15% 절감하면서, 국내 시장점유율 50%는 물론, 일본 시장점유율 5%도 실현 가능한 수익 창출의 기반을 갖추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연 1,200t 생산규모의 페로 몰리브덴 설비를 4,800t 규모로 확대하는 증설작업이 진행됐다. 페로 몰리브덴은 배소로를 통해 1차 생산되는 산화 몰리브덴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2차 가공품으로, 주로 철강업체에서 특수 첨가 원료로 사용된다. 설비 확충이 이루어지면 세아베스틸을 비롯한 국내 수요에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저투자, 고효율 노린 설비 증설 추진

배소로의 증설은 새로운 배소로 설치가 아닌 기존 배소로의 Revamping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공정 상의 병목구간을 부분 개조하는 방식으로 2배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배소로 운용기술 노하우를 토대로 발의된 내부 아이디어가 밑받침됐다.

추가 배소로 증설은 투자비 과다로 인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회사 내부적으로 저투자 고효율 구조의 설비 증설 아이디어를 모았다. 여기서 채택된 사항을 기초로 지난해 5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와 함께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설계를 추진해 10월 투자비 검토와 기본 설계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 12월 세아 E&T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설작업에 들어갔다. 현재는 배소로를 정상 가동하면서 먼저 개조를 위한 설비조립 공사를 병행하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배소로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설비 설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페로 몰리브덴 설비의 증설은 지난해 12월 기초 설계를 완성하고 1~3월 설비 제작과 계량 자동화 설비 설치를 마쳤다. 시험 생산과 설비 안정화를 거쳐 3월 말부터 생산을 시작한 상태이다.

생산능력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보

상반기 안에 주요 설비의 증설이 모두 마무리되면 세아 M&S는 경쟁력을 한층 배가하여 국내 몰리브덴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성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또한, 전후방 산업과의 협상력 제고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요 대비 세아 M&S의 공급능력이 3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재료인 몰리브덴 정광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할 뿐만 아니라, 수요 업체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적기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나아가 일본이나 동남아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게 된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부산물에서 고순도 부산물 회수 등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세아 M&S는 2020년 매출 7,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소로 증설 및 안정화를 통한 생산력 증대, 페로 바나듐 제조와 부산물 회수 기술 개발 등이 필수 과제인 가운데, 생산설비의 확충은 목표를 향해 크게 한 발 다가가는 셈이다. 페로 바나듐은 현재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황으로, 이번 설비 증설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생산설비 투자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물 회수 기술도 기초 기술을 확보한 단계이며, 현재 고순도의 부산물 회수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2년부터 혁신활동 3개년 계획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페로 몰리브덴의 제조원가 및 제품공법 개선에 주력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아 M&S는 2020년 매출 7,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소로 증설 및 안정화를 통한 생산력 증대, 페로 바나듐 제조와 부산물 회수 기술 개발 등이 필수 과제인 가운데, 생산설비의 확충은 목표를 향해 크게 한 발 다가가는 셈이다.





세아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라 4기 챌린지 리더 수료식

그룹 차원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챌린지 리더 과정이 어느덧 4기 교육을 마감했다. 그룹사 대리과 과장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챌린지 리더 과정은 이번 4기 15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69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3월 29일 세아홀딩스에서 열린 4기 오프라인의 마지막 과정, 개인별 문제해결 프로젝트 발표에서 1, 2, 3위를 차지한 3명의 챌린지 리더의 소감을 통해 4기 챌린지 리더 교육 과정을 엿본다.



4기 챌린지 리더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8차 수에 걸쳐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육에 참여하며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수료식을 겸한 마지막 과정은 1년간 수행해온 개인별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평가받는 시간이었다. 29일 세아홀딩스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발표에는 세아홀딩스 김진규 대표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자리했다.

팔목할 만한 성장이 돋보였던 각 프로젝트의 최종 평가 결과, 'PAIL PAC MACHINE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한 세아에샵 국내영업팀 조정제 과장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2, 3위에는 '상품, 부자재 구매 해외법인 지원업무 개선'을 발표한 한국번디 수출팀 김성소 과장과 '베어링강 청정도 확보를 위한 LF 공정 개선'을 추진한 세아베스틸 공정연구그룹 서석민 대리가 각각 선정됐다.



세아에샵
국내영업팀
조정제 과장

“문제해결 능력에 큰 도움”

프로젝트 발표 1위는 우열을 가린 결과라기보다 모두를 대표하여 제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함께 했던 4기 동기들과 세아에샵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생생한 중국 비즈니스 강의와 유수의 중국 기업 탐방은 가장 기억에 남는 알찬 경험이었습니다. 더불어 다채로운 중국 음식문화와 거리 풍경에서 느낀 이국적인 정취는 잊지 못할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것은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어쩔 줄 몰랐던 예전에 비해 지금은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문제인식 단계에서 이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단지 현상에 대한 결과인지를 가늠하는 실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소통으로 끈끈한 우정”

발표를 마치는 순간까지도 3위 안에 선정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서로 코치가 되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4기 챌린지 리더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계열사 및 해외법인 견학은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입니다. 한정된 곳에 머물러 우물 안 개구리일 수밖에 없었던 제게 넓은 세상을 일깨워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들이 흘리는 값진 땀방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저 또한 함께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챌린지 리더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을 바로 이끌 수 있는 현명한 리더십을 갖추고, 모든 사람과 즐겁게 소통하며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번디
수출팀
김성소 과장



세아베스틸
공정연구그룹
서석민 대리

“올바른 대화는 바른 결과를 부른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3위로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의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중국 계열사 방문과 리더십 교육입니다. 직접 방문함으로써 중국의 거대함을 새삼 느꼈고, 또한 중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바로잡는 기회가 됐습니다.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대화가 바탕이 돼야 바른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육과정을 밟아가면서 단순한 지식의 습득보다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지금, 성장했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도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교육의 기회와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세아베스틸의 선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최강 드림팀

드림라인 서부지사

첨단 과학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의 중심 광통신망. 드림라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반짝반짝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광통신망을 보유하고 안전한 서비스와 신속한 장애 해결로, 한 번이라도 사용한 고객들은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신뢰를 다져왔다. 그러나 여기 안정적인 성공을 마다하고 더 큰 도전과 성취를 위해 드림라인 서부지사가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앞으로의 도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통신망에 날개를 달다

드림라인은 전국적으로 43,000km 광통신망을 구축하여 최고의 통신 품질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에 기지국과 광케이블, 공용화기지국, VPN,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등을 공급하고 그에 수반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부지사는 충청권과 전라권을 총괄 관리하며 영업파트와 기술파트로 나뉘어 공조를 이뤄가고 있다.

영업파트의 업무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기존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신규 고객을 더욱 늘려나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팀원들이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오랫동안 고객을 관리했기에 지역 내 문제점과 시장 현황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서부지사 영업파트의 큰 강점이다. 현재 이동통신 매출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밝은 기업시장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업파트가 선두에서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기술파트는 신속한 서비스와 안정적이고 섬세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2,680국소를 운영하면서, 장애 대응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타사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인원임에도 365일 24시간 망 감시를 시행하는 기술파트의 서비스는 고객사 중의 하나인 SK Telecom에서 실시하는 회선제공사업자 분기별 성과분석에서도 몇 년간 만족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고의 팀, 최고의 전략

드림라인 서부지사의 목표는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무궁무진한 기업고객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서부지사는 광범위한 지역에 영업사원이 매일 출장을 가는 지금의 방법이 가지는 비용이나 시간 측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그 결과 지사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있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주요 거점 지역인 순천, 전주, 천안, 청주 등에 유통망 거점 구축을 진행 중이다. 유통망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드림라인에 충성도가 높은 대리점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했으며, 그를 통해 드림라인의 지역별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져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영업적 전략 외에도 기술파트 팀원들은 '장애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고객들에게도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에 있어서 최고라는 평가와 신뢰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1인 1개 신규 아이템 발표를 시행하고 있다. 뛰어난 정보 수집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은 앞으로 펼쳐질 드림라인의 도약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MINI INTERVIEW

“신뢰와 감동이 주는 힘”

영업이란 만나는 횟수가 많고 적음에 그 결과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업파트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신뢰를 주고 또 계약이 이뤄진 다음에도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는 영업파트와 기술파트가 똑같이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서부지사는 모든 팀원들이 서로를 도와가며 지금까지 최고의 고객 만족도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드림라인 서부지사에 가장 큰 변화의 해가 될 것입니다. 멀리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움닫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부지사 팀원들은 꾸준한 노력과 끈기로 멀리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더 이상 시장 확대가 어려운 이동통신 3사의 고객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앞으로 기업고객의 광통신망 시장 확대를 통해 드림라인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기업고객 수 5배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역시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룹 차원의 지원과 팀원들의 노력이 맞물려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봅니다.



드림라인 서부지사
주확진 지사장

드림라인 서브지사



서현태 차장(좌)과 염종건 팀장(우)
큰 키와 시커먼 얼굴이지만 미소가 매력적인 광주 영업팀 서현태 차장과 뛰어난 현장 감각과 친화력의 매력남 대전 영업팀 염종건 팀장.



박주혁 과장(좌)과 성경만 과장(우)
광주 기술팀의 만능 스포츠맨 박주혁 과장과 대전 기술팀의 성실맨 성경만 과장은 업무뿐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환상의 콤비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척척 알아챈다는데?



윤여찬 차장(좌)과 안소희(가운데), 김승준 과장(우)
자로 짠 것처럼 정확함을 자랑하는 대전 기술팀 윤여찬 차장, 드림라인의 안주인이자 살림을 맡고 있는 안소희 사원, 드림라인 4개 지역을 잇는 대전 기술팀 김승준 과장

이재명 차장(좌)과 윤성돈 차장(우)
대전 기술팀의 만형 이재명 차장과 광주 기술팀의 척척박사로 통하는 윤성돈 차장. 오랜 노하우와 자상함으로 동료들과 후배들을 돌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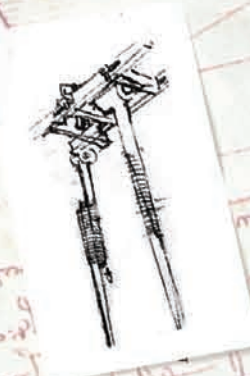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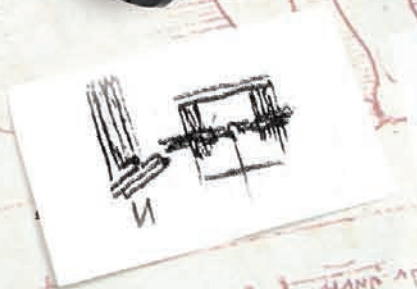


이용승(좌), 주학진 지사장(가운데), 김용찬 과장(우)
대전 영업팀 신입사원으로 패기와 열정을 자랑하는 이용승 사원과, 서부지사의 선봉장으로 사기를 돋고 힘을 주는 주학진 지사장, 광주 영업팀의 아이디어 뱅크로 통하는 김용찬 과장이 함께 뭉쳤다.



신재운

세아특수강 물류자재팀 과장



천재성과 도전정신이 만났다!

집중과 선택의 힘

과학과 예술, 문학 모든 분야의 천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분한 세아특수강의 신재운 과장을 만났다. 천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한 번 몰두 하면 무섭도록 집중한다는 점이다. 시행착오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도전정신은 세아특수강을 빛낸 역사에 길이남을 것이다.



꾸준한 노력과 획기적인 아이디어

세아특수강 물류자재팀은 CHQ WIRE, CD BAR, BAR TO BAR, PEELED BAR을 생산하기 위한 원부자재 입고부터 시작해 제품, 안전과 같은 전반적인 업무 환경관리까지 지원한다.

충주공장 물류자재팀의 든든한 대들보로 불리는 신재운 과장은 2011 세아업적상 시상식에서 생산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세아업적상 은상 수상의 발단은 충주공장의 발전을 위한 신재운 과장의 도전과 노력의 시간과 맞닿아 있다. 충주공장은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추가 설비투자 없이 기존 산세공정에 조(염산조, 칼슘조)를 증설해서 Cycle Time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산세처리 양을 늘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세 피막 부적합이 발생해 품질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가동률에도 영향을 미쳐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 끝에 2011년, 마침내 신재운 과장과 팀원들은 가스실링시스템을 고안해냈다.

가스실링시스템은 산세공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염산가스의 누출 경로에서 강제로 공기를 유입시켜 공기막을 형성, 염산가스 유출을 차단한다. 그렇게 유입된 공기는 가득 찬 내부의 염산가스를 정화하여 다시 공기막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기술은 CHQ 업체 중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많은 개선방법을 고심해봤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세아특수강 가족들의 도움과 환경방지시설 전문업체인 지테크코리아와 함께 연구하고 다방면으로 시도한 끝에 문제점을 완벽하게 개선해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세아업적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다는 점보다도 더욱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

는 신재운 과장. 새로운 도전정신과 세아특수강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중심이 된 이 기술은 가스로 인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개선하고 근로자 만족도를 크게 상승시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가스실링시스템은 충주공장뿐 아니라 세아특수강 포항공장에 적용됨은 물론 유해가스 누출이 차단되는 산세척 설비로 특허출원 접수를 마쳐 현재 특허청의 최종심사 중에 있다.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라

“도전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었다면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서 좌절한다면 실패가 되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 성공을 하면 그것은 결국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업무적 목표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일을 하다보면 오로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고, 또 사람에게서 치유를 받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고 또 그것을 밑거름 삼아 자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아업적상을 수상한 세아특수강의 얼굴 신재운 과장에게 세아에 몸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물었다. 그는 세아가족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단편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실행력, 그리고 추진력은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력을 의미한다고 했다.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더라도 이렇듯 일상천리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확대 설치되는 경우는 다른 기업에는 없는 문화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직원들을 믿고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물류자재팀의 선봉장으로서 신재운 과장의 다음 목표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시장조사와 대체 품목 개발에 집중하는 것. 애사심과 책임감을 가장 중요시하는 신재운 과장의 다음 목표 역시 단 시간 내에 성취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새로운 도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이기에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profile

이름 신재운

별명 불도저 [한 번 하고자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간다.]

좋아하는 것 술 [술자리는 선후배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소통의 창]

싫어하는 것 가식적인 사람

좌우명 인상이 인생을 좌우한다. [긍정적인 사고는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신재운 과장, 내 안의 천재 본능을 느끼다!

세기의 천재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술가이자 과학자, 기술자이자 사상가이다.

세아특수강을 대표하는 도전가이자 노력가인 신재운 과장의 일상 속 다채로운 재능을 발견했다.



1 열대어 기르기 큰아이가 돌이 지날 때쯤부터 기르기 시작한 열대어는 언제부터가 집안의 습도를 조절해주고 환상적인 풍경으로 거실 분위기를 살린다. 열대어는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한 열대어 기르기가 아이들의 교육과 정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집안 환경까지 안락하게 해줘 더욱 집중하고 있다.

2 채소가꾸기 우리집의 자랑거리 유기농 채소는 상추. 매년 봄이면 아이들과 종묘사에 가서 씨앗을 사다가 종이컵에 씨앗을 2~3개씩 심는다. 보름쯤 지나면 새싹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잎이 커지면 스티로폼에 옮겨 심으면 된다. 물은 아침, 저녁으로 2번씩만 주면 새로 심지 않아도 계속 뜯어 먹을 수 있어 여름까지도 상추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유기농 채소로 우리가족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3 일요일엔 내가 요리사! 진정한 요리사는 거창한 요리가 아니라도 솜씨를 발휘하기 마련. 흔한 라면도 내가 끓이면 맛이 다르다. 그 비법을 세아가족에게만 살짝 공개한다. 첫째 물의 양이 아주 중요하다. 둘째는 순서다. 물이 끓으면 절대로 면을 먼저 넣지 말고 스프부터 넣는다. 셋째는 나만의 재료 추가(콩나물 또는 숙주나물), 비지락, 양파 반쪽, 다진 마늘, 고춧가루, 청양고추, 대파, 다시마, 당근을 넣으면 국물에 깊은 맛이 우러나와 환상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를 하는 사람의 사랑과 정성이 아닐까?

4 고기잡기 나는 민물고기 매운탕을 참 좋아한다. 물살이 빠른 냇가에서 즉대로 큰 돌을 감싼 후 돌을 흔들거나 들추면 그곳에 붙어사는 꺾지, 통가리, 동자개, 메기, 쉬리 등이 잡힌다. 여름이 되면 어디서나 맛 볼 수 없는 이 재미에 속 빠진다. 이제는 물고기 잡기의 명수가 된 나,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갖은 야채와 양념으로 맛깔나게 매운탕을 끓여 주는 우리 아내는 천생연분이다.

5 볼링 볼링은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이다. 10개의 핀을 한순간에 쓰러트릴 때 쾌감은 정말 짜릿하다. 재미로 하다 보니 프로 선수 못지 않은 솜씨를 자랑하게 되었다. 친구, 동료들과 모여서 게임도 즐기며 친목도모도 다지는 건강한 스포츠이자 취미생활이다.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를 바꾸는 힘도,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도,

생각을 바꾸는 혁명을 일으키는 일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아인의 생각이 세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조조의 용인술(用人術)

“의심스러운 인물은 쓰지 말고, 쓰려거든 의심하지 않는다”

상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원

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리더의 대처

방안에 따라 조직의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사람을 다루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용인술(用人術)의 귀재, 조조

를 통해 바람직한 상사의 모습을 살펴본다.

글: 삼국지리더십연구소 나채훈 소장

‘상관으로는 조조’

고전소설 <삼국지>를 완독하지 않았더라도 제갈량이나 조조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특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부합되는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날 중국의 기업들에서 ‘부하를 얻으려면 제갈량, 상관을 모시려면 조조’라는 말이 속담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제갈량은 지혜의 화신으로 국궁진력(鞠躬盡力)하는 인물인 만큼 이해가 되겠으나, 조조의 경우는 다소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몹시 냉혹한 성품의 인간으로 알려져 있으니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끼기도 어렵고 사귀기도 조심스러울 텐데 상관으로 모시라니 의아하거나 어리둥절할만하다.

하지만 격변하는 세상에서 성공이란 목표를 지향하는데 있어서는 조조의 면목을 결코 대수롭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다.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을 기대한다. 혹 성공에 대한 이해가 같을 수는 없겠으나 성공한 인생을 살려는 자세는 동서고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성공의 길(道)은 몹시 모호하다. 현대처럼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 길은 더욱 복잡해진다. 성공을 했더라도 언제 쇠퇴의 길로 들어설지 모른다.

3무(三無)의 해결책이 핵심

개인도, 기업도 성공을 원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 무관심(無關心)하거나, 변화를 인식했으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른다거나(無知),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나 실행단계에서 제대로 못하면(無能) 성공은 곧바로 쇠퇴라는 다른 길로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 3무(三無)의 해법으로 아마 ‘상관으로는 조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조조는 잘 알다시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난세를 뚫고 창업의 리더십을 실현한 대표적 인물이다. 부하를 등용하는 원칙이나 어떻게 부려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지 꿰뚫어보았다. 그는 부하를 발탁할 때 ‘유재시거(唯才是擧)’라 했다. 인재 등용을 발표한 「구현령(求賢令)」에서 장황하리만치 갖가지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결론으로는 ‘오로지 능력 있는 인물을 천거하라. 과감히 기용하겠다’고 했다. 신분이 천하다거나, 품행이 나쁘다거나, 소문 같은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오직 능력만 중시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조조가 말하는 ‘능력본위’는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자질을 말하는 것이다. 창업기든 기업의 성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기든 마찬가지이다. 변화를 읽는 안목이 없이는 성공은 물론 이룩한 기반조차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여긴 것이다.

三無



이런 인물을 기용한 후에 조조는 적소적재(適所適材)에 그들을 배치한다. 예를 들면 어떤 방침을 실시하려고 할 때, 우선 근본 취지나 실행방안에 대해 십분 이해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부하를 배치했다. 면중복배(面從腹背)하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을 골라내고 믿을 수 있는 인물을 배치했으며 그런 다음에는 끝까지 믿었다(疑人不用).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부하가 맡은 바를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가 나쁠 경우에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인재는 오랜 경험 속에서 그 재능이 단련되고 완성된다. 공든 탑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듯이 말이다. 단 한 차례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재를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일벌백계(一罰百戒)보다는 다시 한 번 의기를 북돋우고 앞날을 기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조조의 용인술이 지닌 핵심은 앞서 말한 3무(三無)에 대한 명료한 해법이었다고 하겠다. 이런 자세가 1,8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결국 이런 상관을 모시고 싶다는 의미는 역으로 바람직한 상관이 되어 부하의 능력을 이해하고 발휘하게 해주면서, 다소의 실수가 있더라도 진정성을 믿어주며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기업이나 일반의 조직에서 바람직한 상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조조의 용인술에 더하여 ‘인품과 능력을 갖추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는’ 부하를 높이 평가하고 끔찍이 아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세아형 인재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돼라

‘바람직한 세아인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나는 바람직한 세아형 인재일까?’ 발전하기 위

한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세아가족이 있다면

이번 인터뷰를 주목하자. 세아인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줄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하재우

세아제강 대표



세아제강 하재우 대표는 포항공장이 준공되기도 전인 1978년 1월 4일, 세아그룹에 입사했다. 생산 엔지니어로 입사해 단위공장장을 거쳤고, 우리나라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어 낸 세아제강의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세아제강 포항공장의 구석구석 그의 손길과 눈길이 지나지 않은 곳이 없다. 1978년 1월 4일, 34년 전 첫 출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세아제강 포항공장의 산 역사, 하재우 대표를 만나 세아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끌려갈 것인가 이끌어갈 것인가

〈임제록(臨濟錄)〉을 보면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글귀가 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뜻이다. 이는 하재우 대표가 세아인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인 동시에 성공하려는 사람은 두고두고 명심해야 할 말이다. “신입사원의 경우 이렇게 일을 하면 선배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겠죠. 또 중간 관리자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그 조직의 미래도 밝을 겁니다.”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다보면 스스로도 무기력해질 것이다. 상급자에게 먼저 제안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절충하거나 잘못된 점을 수정하면 된다.

“내가 입사했을 때에 의아했던 점은 심지어 외국 자료를 찾아봐도 파이프에 대해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파이프 사업에 몸담은 이상 이것만큼은 1인자가 되어 보자고 생각했었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소 황당해 보이는 꿈도 좋아요. 내가 주인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해보세요.”

‘수처작주’와 같은 맥락에서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보면 다소 황당해 보이는 생각도 필요하다. 누구나 “주인의식을 갖고 하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하는 생각을 직접 해보는 이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재우 대표는 말한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도전하라

주인의식을 갖고 있을 때 위기가 닥치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하재우 대표는 Vietnam Steel Pipe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갔을 때를 회상했다. 하필이면 공장을 짓기도 전에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닥쳤다. 당시 해외에서 세아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고, 탄탄한 기반과 수익구조를 가진 것과 상관없이 외환위기에 놓인 나라의 회사에 선뜻 자금을 제공해줄 은행이 없었다. 호치민에 있는 13개의 은행을 직접 돌아다녔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베트남에 가지 않았다면 금융위기를 그만큼 깊이 체감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로 인해 느끼고 배운 것들이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흘러도 세아인들의 모습 속에 변하지 않았으며 또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성실함일 것이다. ‘세아’를 아는 사람이라면, ‘세아’는 ‘성실하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면과 성실은 세아제강뿐 아니라 세아그룹 저변에 깔린 문화다. 그것은 창업주의 정신과 술선수범에서 전해져 온 오랜 역사 덕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세아인에게 성실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한 때이다. 하재우 대표는 앞으로 ‘세아인’이라는 말 속에 ‘도전’과 ‘열정’이 함께 연상되기를 바란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세아인이 될 수 있고, 또 세아의 이름 안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세아인 24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세아제강 포항공장의 JCOE 설비 도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주인공들의 24시를 엿보자.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임종표 차장



세아제강 포항 생산2팀 류청 차장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백승문 대리



세아인앤티 토목건축팀 전현명 사원



더 빨리, 더 일찍 시작되는 그의 아침

임종표 차장의 아침 6시

임종표 차장의 하루는 새벽 6시부터 시작된다. 식탁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면서 오늘 진행될 미팅과 업무들을 스마트폰의 일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정리한다. 그에게 유일한 휴식시간은 차를 몰아 해안도로를 달리는 시간이다. 탁 트인 동해바다를 지나며 세아제강의 미래를 그려본다. 아침 8시. 한정된 비용으로 최고의 설비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생산, 판매해왔던 제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 유럽 설비업체와 접촉하는가하면, 주요 설비에 대한 단위 설비별 기술미팅이 줄지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조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백승문 대리의 오후 4시

설비 좌표를 확정 짓기 위해 내부 회의를 거쳐 용접라인 기술미팅이 이어진다. 제작 시방서대로 설비가 제작될 수 있도록 꼼꼼히 설비사양을 협의한다. 아주 조금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은 일이기에 한시도 미룰 수 없다. 백승문 대리는 차근 차근 퍼즐을 맞추어 나가듯이 조율하고 확인한다. 그의 업무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퇴근 시간도 잊은 채 설제도에 몰두하는 모습에서 세아제강의 미래를 본다.



식사 시간도 잊을 만큼의 집중

류청 차장의 점심 12시

모두들 잠시 숨을 돌리며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 류청 차장의 점심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빠르거나 혹은 조금 늦다. 그래서 정오의 그는 늘 업무 중이다. JCOE 프로젝트 설비별 세부 생산 능력을 예측·검토하고 최고의 인재로 팀을 꾸려 신설 JCOE 공장의 빠른 안정화를 꿈꾸며 준비에 한창이다. 가끔 점심 먹는 것마저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 일에 몰두하는 류청 차장의 눈빛에는 열의가 가득하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전현명 사원의 저녁 6시

모두가 귀가할 준비를 서두르는 동안에도 전현명 사원의 업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JCOE 공장 증축의 토목건축 총관리를 맡고 있는 그의 어깨가 무겁기 때문이다. 증축될 공장에서 근무할 직원들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위해 퇴근시간도 잊은 지 오래다. 사무실에는 하나 둘 불이 켜지고 그 역시 공장 건설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확인사항을 체크하고 내일의 업무를 준비하면서 그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바쁜 시간은 이제 시작된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시간도 잊은 채 세아제강 포항공장 JCOE 설비 도입을 위해 몰두하는 네 사람의 하루를 통해서 세아제강의 미래를 본다. 포항공장에서 진행되는 JCOE 공장 건설에 쏟은 직원들의 땀방울과 노력만큼 세아제강의 경쟁력은 더욱 커져간다.

좌충우돌 세철씨의 직장어사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풀이해 보면 ‘수고(受; 받을 수, 고통; 어려움)’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하면 ‘앞으로 더 고생하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윗사람보다 먼저 자리를 뜰 경우에는 “내 일 뵙겠습니다” 또는 “안녕히 계십시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아의 나눔 교향곡

안단테,

섬세하고 차분한 선율처럼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마음이 됩니다.

모데라토,

점점 커지는 세아의 나눔은
봄바람에 실려 어두운 곳, 외진 곳까지
구석구석 부드러운 따스함을 나누어 보냅니다.

포르테,

웅장한 울림과 큰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빛낼 세아인들의 사랑.
깜깜한 밤하늘을 비추는 별빛이 되어
나눔을 실천합니다.



세아베스틸과 함께하는 신춘 음악회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 봄을 부른다

봄이 성큼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봄이 움츠러드는 시기. 두꺼운 외투로 무장을 하고 서로 손을 꼭 잡은 가족들이 군산대 아카데미홀로 속속 모여들어 시끌벅적해진다. 군산 시민들을 위해 세아베스틸의 주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어느덧 네 번째를 맞았다.



세아베스틸이 군산 시민들과 사원 가족들을 위해 펼치는 음악회가 3월 7일 군산대에서 열렸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성악가들의 공연과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어우러지며 콘서트홀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던 현장 소식을 전한다. 영하의 추위를 단번에 날려버릴 만큼 열정적인 공연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선율로 군산 시민을 위해 봄을 재촉하는 세아베스틸이 있다.

봄을 부르는 다채로운 선율

“올해는 신춘 음악회로 군산 시민들과 세아베스틸 가족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밖의 날씨가 아직 춥지만 오늘 여러분을 위해 아름다운 곡들을 준비했으니 봄기운을 만끽하시며 조금이나마 추위를 잊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작곡가 글린카가 남긴 가장 유명한 오페라 〈루슬란과 르드밀라〉 서곡이 경쾌하게 흐르는 가운데 진행자 장일범 씨의 인사로 음악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쌀쌀한 날씨에도 군산대 콘서트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지난해 신년 음악회에서 받은 감동으로 더 큰 기대를 안고 자리하여 군산시교향악단과 다시 만났다. 군산시교향악단은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더디 오는 봄을 재촉하는 듯 부드럽고 경쾌한 선율이 가득한 음악들을 엄선해 선사했다. 특히 연주의 사이에 이어지는 진행자 장일범 씨의 입담과 해설은 모처럼의 문화공연 기회를 관객들이 더욱 깊이 이해하고 만끽할 수 있도록 큰 재미를 더했다.

추위로 날려버린 열정적인 환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폴카 〈천둥과 번개〉, 〈헝가리 만세 폴카〉, 그리고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가 연이어 연주되면서 움트는 봄의 기운이 풍성해져간다. 비에니아프스키의 바이올린 명곡 〈전설〉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답게 애상적인 선율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별히 이날 바이올린은 원광대 양승돈 교수가 맡아 주옥과 같은 선율을 들려주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헝가리 만세 폴카〉가 연주될 때에는 관객과 오케스트라의 흥미로운 교감도 이루어졌다. “멜로디가 끝나면 마지막에 ‘군산!’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으세요? 타이밍이 늦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연습을 해볼까요?” 지휘자 정낙복 씨의 재치 있는 제안에 따라 관객들은 ‘군산!’을 외쳐보지만 조금 아쉬운 타이밍에 공연장이 이내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군산 시민들과 교감하며 경쾌한 기운을 돋우기 위한 정낙복 씨의 지휘가 오늘따라 더욱 열정적으로 느껴졌다. 한편, 1부의 마지막은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가 장식하면서 음악회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세아베스틸 문화나눔 실천의 현장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2부 시작을 알렸다. 영국 대관식이나 미국의 대학 졸업식에서 자주 들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곡이기도 하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경건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웅장하고 힘찬 멜로디로 관객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었다. 2부 공연은 오페라 아리아들로 채워졌다. 소프라노 서할란, 테너 하석배, 바리톤 우주호가 무대에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박쥐〉, 〈돈 지오반니〉, 〈카르멘〉, 〈투란도트〉 속 아리아를 선사했다. 아리아는 상대의 마음을 엿보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을 전하는가 하면, 티격태격하다 마음을 여는 순간을 감미로운 음악과 소리로 표현하며 관객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세아베스틸이 주최한 군산시와 함께하는 음악회는 대도시에 비해 문화공연의 체험 기회가 적은 군산 시민들과 임직원들을 위한 문화나눔의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신년 음악회로 좋은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는 봄을 여는 음악회로 적극 추진됐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악과 세아베스틸은 공통점이 많다. 이는 우리 주변을 보다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앞으로도 세아베스틸은 매년 음악회와 같은 문화나눔 활동으로 더욱 많은 이웃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강남도시가스 '북채움' 독서상자 만들기

아이들의 꿈을 채우는 일

입춘은 한참 지났건만 여전히 추운 어느 봄날, 양천구 신월동 신월문화체육센터에 강남도시가스 행복나눔봉사단 희망나눔팀이 뿔뿔히 났다.

글: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이근기 과장

하나, 꿈의 공간 만들기

3월 25일 사내 행복나눔봉사단 희망나눔팀의 일원으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캠프에 참가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북채움' 독서상자를 만드는 행사였다.

'북채움' 독서상자 만들기 행사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권역 내 어린이들의 놀이방이자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를 꿈의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활동이다. 독서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각계각층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를 담아 각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 했다. 강남도시가스는 독서상자를 만드는 자원봉사는 물론, 그간 직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모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캠프에는 강남도시가스의 희망나눔팀뿐 아니라 권역 내 타 기업체와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까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졌다.



둘, 행복한 세상 만들기

평소라면 곤히 자고 있을 일요일 아침 9시 30분. 자원봉사캠프가 진행되는 양천구 신월7동에 위치한 신월문화체육센터에 희망나눔팀 인원들이 속속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봉사활동이 시작됐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함께 자원봉사캠프에서 사용할 자재와 도서, 그리고 각종 준비물들을 옮기고, 체육센터 강당 바닥에 골판지를 까는 등 행사준비와 진행을 도왔다. 이후 강남도시가스 희망나눔팀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도착해 서로 인사를 나누며 '북채움' 독서상자 만들기를 시작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주관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행사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 책 읽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인성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영상 통해 볼 수 있었다. 이후 독서상자를 만들 때 주의할 사항을 듣고 나서 본격적인 독서상자 만들기가 이어졌다. 우리는 각 기관별로 지정된 장소에 독서상자 재료를 나누어주는가

하면, 기증된 도서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독서상자를 만들었다. 강남도시가스 직원들은 능숙한 솜씨로 독서상자 조립을 척척 해냈다. 빠른 시간 안에 다 완성한 우리들은 이런 작업이 서투른 어린이나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증받은 도서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과 스티커 부착이 완료된 도서들을 독서상자에 채우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많은 인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도서를 상자에 채울 수 있었다. 행사를 마치면서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이번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에서도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장님의 "자원봉사는 이제 단순한 선행을 넘어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과 행복한 세상 만들기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나눔과 실천의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나와 하나가 만나 더 큰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자원봉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만나게 되는 세상에서 더 큰 사랑과 성장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자원봉사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가 뇌리에 깊이 남았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문화체육센터 강당 앞쪽에 진열해 놓은 100여 개의 독서상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만든 독서상자에 도서가 가득 채워져 각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다. 상상력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책을 읽으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현명하게 자라나는 꿈을 꾀다. 사랑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말처럼 봉사활동을 나누고 내 마음 속 사랑은 두 배가 됐다.



세아, 메세나로 문화예술의 꽃 피우다

세아제강, 국립오페라단 <라 보엠>과 함께

국립오페라단이 새롭게 불러넣은 숨결

2012년 새 봄, 국립오페라단이 선보이는 <라 보엠>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의 완벽한 음악적 해석이 돋보이는 지휘 아래,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새롭게 거듭났다. 2012년 국립오페라단 창단 50주년을 축하하는 역사적인 무대를 위해 한국 오페라의 오랜 친구, 세아제강이 한국 오페라의 발전을 지원하며 이 뜻 깊은 공연 후원에 참여했다.

<토스카>, <나비부인>과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으로 불리는 <라 보엠>은 '내 이름은 미미', '그대의 찬 손', '아, 사랑하는 아가씨여' 등 주옥같은 아리아로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오페라 중 하나이다. 앙리 뮌츠제의 소설 <보헤미안들의 인생풍경>을 바탕으로 작곡된 전 4막의 오페라로 19세기 파리, 꿈과 환상을 갈망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삶을 그렸다. 국내외 음악계 거장들이 함께하는 2012년 최고의 오페라 <라 보엠>은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오페라로 5월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 중국국가대극원(NCPA)에서 다시 한 번 공연된다.

메세나(mecenat)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활동이나 지원자'를 일컫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좋은 경영성과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성숙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영역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세아는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문화예술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될 것이다.

세아홀딩스,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2> 후원

조각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2>가 '조각은 재미있다'는 표어를 내걸고 일반적으로 '무겁고 딱딱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관객과 가까워지려 손을 내밀었다. 4월 7일부터 4월 13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된 이 전시는 국제적인 조각의 흐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조각가들의 축제이다. 조각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시는 <서울국제조각페스타>가 유일하다. 올해 전시는 특히 조각가와 관람객, 사회와 미술을 잇는 역할에 주목하여 기업 참여를 독려해 조각과 산업의 연계를 유도하고, 조각의 외연을 넓혀 보다 소통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세아홀딩스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여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2를 공식 후원하는 기업으로 참여하게 됐다. 또한, 이번 전시는 '삼차원'의 원류가 되는 입체 작품 '조각'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다른 단면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스며 있었다.

국제 조각 전시회답게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조각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조각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116명 조각가들의 작품 700여 점을 전시했다.



세아베스틸, “희망나눔 후원 계좌제”

작은 관심이 모여 큰 사랑이 돼요

세아베스틸이 군산시와 협약을 맺고 향후 1년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후원금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후원금은 세아베스틸의 기부제도 ‘희망나눔 후원 계좌제’를 통한 기부금과 근로장학금 형태로 조성할 예정이다. 4월 4일 군산시청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과 함께 세아베스틸 신홍수 전무, 설승욱 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했다.

글: 세아베스틸 기획팀 이정화



이웃사랑, 티끌 모아 태산

세아베스틸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게 된 ‘희망나눔 후원 계좌제’는 임직원 개인별로 희망 계좌를 신청하여 참여하는 사내 기부제도이다. 한 계좌당 1,000원으로 1인당 1~10계좌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최대 한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신청한 계좌 금액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매월 조성되는 희망나눔 후원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여 지역 내 아동양육 및 복지 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지역아동보호센터 등 차상위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3월 한 달간 사내 기부제도 시행을 위해 사내 홍보에 힘쓰며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에 주력했다. 그 결과, 전체 임직원 1,518명 중 1,211명의 신청을 이끌어냈으며 이번 한 달간의 희망나눔 후원금으로 11,793,000원이 모아졌다. 군산시와의 협약에 의해 1년간 지원하게 될 희망나눔 후원금은 1억 4,000만 원 규모이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근로장학금을 후원해왔다. 근로장학금은 세아베스틸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끝잔을 모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군산시와의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한 세아베스틸은 2012년 3월부터 향후 1년간 군산시 12개 고등학교에서 각 한 명씩을 추천 받아 총 12명의 학생들에게 분기당 30만 원, 한 학년 동안 총 120만 원 상당을 후원하기로 했으며, 그 규모는 연간 1,4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사랑 받는 기업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부문화가 기업문화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새롭게 ‘희망나눔 후원 계좌제’ 사내 기부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장학금 후원 역시 2011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정기적인 후원활동으로 발전시켰다. 이외에도 군산 시민들과 세아베스틸이 함께하는 신춘 음악회 개최, 임직원들이 꾸준히 참여해온 사랑의 헌혈 활동, 그밖에 무료 급식소 배식과 김장김치 나누기 등 봉사활동은 물론,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에도 꾸준히 관심을 쏟으며 참여해왔다. 여기에는 모든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함께 나눔 문화를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온 세아베스틸의 노력이 크다. 세아베스틸은 나눔과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만들며 사랑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작은 정성으로 큰 기쁨을

세아특수강 직원들의 책상 위에는 사랑스러운 가족사진이 장식된 작은 저금통이 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우리 이웃을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차곡차곡 모은 동전들이 쌓여 1년 후 저금통을 모두 모으면 성인 남자 한 명이 혼자서 들기 어려울 정도의 무게의 사랑이 싹튼다. 한 푼 두 푼 모은 저금통이 묵직한 것을 느끼며 직원들 얼굴에도 자연스레 미소가 걸린다. 저금통을 전달하는 사람도, 건네받는 굿네이버스 관계자분들도 덩달아 흐뭇하다. 이 동전에 담긴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져 작은 기쁨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나눔 의지에 뜻을 달아

3년간 사랑의 동전으로 기부해온 후원금은 2009년 361,050원, 2010년 471,410원, 2011년 624,200원으로 그 규모는 결코 크지 않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나눔과 실천에 대한 마음이 점차 서서히 열리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 시행 첫해에는 큰마음만큼 실천이 습관되지 않아 빈 저금통이 종종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번 2011년 한 해 동안 모은 동전 저금통 중에 공허함만이 담겨 있는 저금통은 전체 중 2~3개에 불과했다. 온전히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사내 기부 캠페인이지만 그동안은 무관심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묵직해지는 저금통만큼 세아특수강 임직원들의 자율적 나눔 의지는 점차 커지고 있었다. 세아특수강의 성장과 더불어 임직원들의 나눔 의지도 더욱 확산되어 국내외 아동들이 쑥쑥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은 모금함을 타고

개인별 저금통을 나누어 주던 세아특수강은 올해 조금 더 나아가 사업장별 대형 저금통을 1~2개 추가로 배포했다. 연초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이 함께 실천했던 ‘생활 속 나눔 캠페인’에 대해 사내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과 더불어 마침 굿네이버스 측의 제안이 있었다.

또한, 사무직원 중심의 모금에서 생산현장 직원은 물론, 방문객까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모금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각자의 책상 모퉁이에서 시작된 작은 모금 활동이 점차 그 사랑을 키워 지금에 이르렀듯이 대형 저금통의 사랑도 조금씩 커져 우리 직원들의 사랑이 가득 담기기를 기대한다.

세아특수강, 사랑의 동전 모으기

작지만 큰 동전의 힘

세아특수강 직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아온 사랑의 동전을 2월 20일 굿네이버스 측에 전달했다. 2009년부터 굿네이버스와 함께 생활 속 모금활동을 실시해온 세아특수강은 매년 초 각 사업장에 임직원 개개인의 이름을 부착한 식빵모양의 저금통을 배포하고 1년 동안 생활 속 작은 나눔 실천에 참여해왔다.

글: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 김동기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짜조’ 같은 베트남의 매력

세아가 베트남에 진출한 지도 어느덧 19년째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인간적이고 재미있는 베트남의 매력, 베트남 생활 3년차인 코이카 베트남 사업팀 변은지 씨가 들려주는 생활의 지혜를 살짝 엿볼까요?

글: 코이카 베트남 사업팀 변은지

첫날은 그랬습니다. 아침 여섯 시,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알람시계의 도움 없이도 눈을 떴고 희뿌연 창문의 먼지를 닦고 창을 열어 쿨쾨한 매연을 흠뻑 들이마셨죠. 잠깐 멍한 상태에 있다가 정신이 들고 보니 창을 통해 보이는 건수없이 많은 오토바이들의 행렬과 자동차가 뒤섞인 도로 위의 소음이었고, 흐릿했던 것은 창문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대기를 뒤덮은 먼지들로 인한 잿빛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저는 빠르게 베트남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무단횡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점이 길을 건너는 일인데 눈치껏 운전자들의 눈을 응시하면서 차근차근 건너가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담력도 필요하겠죠. 남이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 건너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호 따위는 무시합니다. 이곳에서는 횡단보도와 육교로 길을 건너면 바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니까요.

택시를 탈 때는 조심 또 조심

저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택시만 탑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절 ‘된장녀’라고 부르겠지만 이곳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는 택시가 가장 편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아직 버스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택시를 탈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할 수 있거든요. 15초마다 돈이 올라간다거나 빙빙 돌아 목적지에 도착한다거나, 여행지에서는 사람 수에 따라 택시비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대중화된 회사의 택시를 타거나 타기 전에 미리 얼마를 줄 것인지 흥정을 하고 택시를 타야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공짜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무료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도 없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면 물수건과 물도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물 대신 저렴한 짜(Tra, 차)를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당황스럽게도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또한 계산서도 잘못된 경우가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류 열풍, 박지성과 인삼

베트남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광합니다. 그래서 박지성 이야기만 꺼내면 금세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 생활은 복잡해보이지만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일정시간이 되면 낮잠을 자기도 하고 공휴일에는 모두 쉽니다. 한국처럼 돈을 벌기위해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다. 돈보다는 사람과 가족이 우선입니다.

한류 열풍 덕분인지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을 좋아합니다.

또 한국화장품,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인삼이 인기상품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 사회적으로 평등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도 많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적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공원에 모여서 사교댄스, 에어로빅을 하거나 운동을 합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부나 연인들이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전문 댄서 같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저도 에어로빅을 함께 해볼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한국과 다른 문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중국 문화권이었기에 가족중심적 생활과 어른공경, 명절 지내기 등 한국과 비슷한 문화가 많고 정서적으로도 비슷합니다. 한국에서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행동한다면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은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 Co Len(파이팅!)

*짜조(Cha Gio): 베트남의 대표 음식 중 하나로 라이스페이퍼에 야채 등을 넣고 튀겨낸 ‘스프링롤’



꿈을 신고 물 위를 달리다 세아베스틸 캐남 4인방

꽃의 계절이 왔다. 바야흐로 나들이 가기에 더 없이 좋은 계절, 봄. 세아베스틸의 해피 바이러스들을 만나 봄기운을 만끽하고자 소풍을 나섰다. 어느덧 입사 9~10년차. 팀은 다르지만 동기 사랑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세아를 위해 뛰었고, 오늘 잠시 숨을 고르자고 나들이에 나선다. 그런데, 이 나들이 처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



모터보트가 바람을
가르며 앞으로 나갔다
그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소리를 지르며
손을 위로 쪽 뻗는다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봄날, 연인 혹은 가족들이 오는 모습이 더 어울릴 법한 호수공원에 중년남자 넷이 우두커니 서 있으니 어느 누가 모를 수 있을까. 그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란 것을.

만나자마자 들려온 첫 마디는 “오늘 왜 패러글라이딩 안하는 겁니까?”였다. 그러자 모두 한 마디씩 거든다. “우리 팀 후배는 내가 오늘 오리배를 타러 간다니까 대놓고 웃진 못하고, 웃음을 참느라 어찌나 애를 쓰던지...” “난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 올 테니 기대하라고 했었어.” 이들의 볼멘소리를 듣고 있으니 천방지축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차갑다. 하지만 이들은 금세 현실에 순응하고 오리배를 향해 힘차게 걸어간다.

동심으로 돌아가다

해질녘에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답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 ‘은파관광지’는 이제 저수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따스한 봄이 되면 길 따라 핀 벚꽃이 색다른 모습을 만들어 장관을 이루고,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물빛다리과 화려한 조명의 음악분수, 빼어난 야경은 은파관광지를 군산의 대표 볼거리로 만들었다. 또한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기에 좋다. 근처에 살고 있는 곽종현 대리는 아이들과 종종 이곳으로 나온다고 한다.

본격적인 물놀이(?)를 시작하기로 했다. 첫 번째는 모터보트. 배에 탈 준비를 하면서 구명조끼를 입는데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한 팀도 아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는지 묻자 넷이 맞추기라도 한 듯 호탕하게 웃는다. “취미가 같아요. 취미가. 하하.”

모터보트가 바람을 가르며 앞으로 나갔다. 그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소리를 지르며 손을 위로 쪽 뻗는다. 말로는 고작 이런 체험을 한다며 투덜댔지만, 막상 사무실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바람을 쐬니 기분전환이 된다. 보트를 타고 저수

지를 한 바퀴 도는 시간동안, 이들은 체험을 즐기며 수다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짧았던 모터보트 체험을 마치고, 오리배를 탈 시간이 왔다. 오리배는 정원이 세 명이기에 두 팀으로 나눠서 탔다. 정준용 과장과 전민상 과장이 한 팀, 송효훈 과장과 곽종현 대리가 한 팀이다.





바람이 불어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푸르른 하늘과 반짝이는 호수는
산책하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 충분했다

이때 들려오는 걱정스런 한마디 “어! 이렇게 타면 큰일 나는데? 저 팀은 둘 다 다리가 짧아서 페달이 안 닿아!” 그러자 전민상 과장이 “그러게. 나도 걱정스럽다!”라며 너스레를 떠다. 다소 짓궂은 장난에도 개의치 않고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이들이 평소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신뢰하는지 느껴졌다.

처음엔 쑥스러워하며 어떻게 타냐고 걱정하더니 올라타는 순간부터 물 만난 아이마냥 신나게 페달을 밟는다. 하지만 점점 페달을 밟는 속도가 느려지더니 결국 멈추고 말았다.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유원지 관리자는 “오리배는 자고로 남녀가 타야 끝까지 재밌지. 남자들끼리 허벌나게 밟아봐야 흥이 나겠냐”라는 명언(?)을 남긴다. 아니나 다를까. 송효훈 과장은 내리면서 “오리배는 몇 번 탔지만, 남자랑 타본 건 처음이야, 처음. 민망하긴 해도 성인 남자 둘이라 힘차게 나갈 줄 알았는데 힘드네”라며 혀를 내두른다. 다음으로 은파관광지 산책에 나섰다. 사랑의 문을 지나 물빛다리를 건너면서 이들의 유쾌한 시간은 계속됐다. 바람이 불어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푸르른 하늘과 반짝이는 호수는 산책하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 충분했다.

회사와 가족, 두 마리 토끼잡기

이들은 입사시기가 비슷하다. 전민상 과장과 정준용 과장이 2002년, 송효훈 과장과 박종현 대리가 2003년 입사 동기이다. 이들이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사무실의 책상이 직급에 따라 일렬로 놓여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닌 뒤통수만 보고 일을 했다. 자신의 개성보다는 조직에 융화되는 것이 첫 번째였다. 하지만 지금은 조직 내에서도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신입사원이 무조건 회사에 맞추기 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조화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최근 회사의 화두 또한 ‘소통’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신입사원이 예쁠까? 아직 업무에는 서투른 것이 당연하기에 기본적인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그래서 인사 잘하는 후배, 예의 바르고 센스 있게 행동하는 후배, 시키는 일만 하기보다는 하나를 시키면 2~3가지를 알아서 더 해오는 후배, 긍정적인 마인드로 즐겁게 일하는 후배,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새내기다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후배가 예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자리를 옮겨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점 진솔한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다들 40대이기에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회사에서는 중간 역할로서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아버지도 집안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가정과 회사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무척 어렵다.

그래서 정준용 과장은 최근 캠핑에 관심이 생겼다. 아이들과 함께 오토캠핑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쌓으면 좋을 것 같아서이다. 전민상 과장 또한 “예전에 3달 정도 배운 적이 있는데, 매일같이 ‘한 일’자만 그러서 포기했던 서예에 다시 도전하고 싶어. 아빠가 무엇인가 배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란다. 이런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아버지의 고민이 아닐까?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또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 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이다.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송효훈 과장이 몸을 풀 준비를 한다. 바로 오늘 저녁, 팀 내 직급대표 당구 대항전이 있다고 한다. 이 팀은 이벤트로 종종 이런 내기를 해, 둘 중 진 사람이 그날의 팀 회식비를 쾌척한다고. 이는 3파트장의 아이디어로, 이와 같은 이벤트 덕분에 친목도모도 되고 단합도 더 잘 돼서, 일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비록 거센 바람 탓에 패기 넘치는 도전인 패러글라이딩은 하지 못했지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보다 유쾌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이들. 하늘을 나는 모습을 꿈꾸듯이 회사에서도 높이 비상하리라 기대해 본다.



【은파국민관광지】

군산시내에 위치한 미제저수지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했다. 순환도로가 있어 자동차를 타고 주변을 구경할 수 있으며, 벚꽃길이 유명하다. 저수지에서는 모터보트, 오리배 등을 즐길 수 있고, 조정경기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1
문의 063-453-4985

세아제강 **기업 설명회(IR) 개최**
세아제강이 4월 4일 포항공장에서 기업 설명회(IR)를 가졌다. 동양증권의 제안으로 추진된 이번 설명회는 송유관 및 유정관의 생산현장 견학을 희망하는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아제강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소경1공장을 거쳐 현재 JCOE 건설이 한창인 현장을 살펴본 후 중경2공장의 제조라인을 견학했다.



포항공장, 장학기금 1억 원 기탁
세아제강이 4월 2일 포항시 장학회에 지역 인재육성 장학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하재우 대표는 “이번 장학기금이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꿈과 열정을 지속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부문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앞장 서는 데 노력할 것”을 밝혔다. 그동안 세아제강은 지역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생필품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다.

포항공장, <신나지> 발간
포항공장이 ‘소통과 홍보의 장’ 마련을 위해 혁신소식지 <신나지>를 발간했다. <신나지>는 ‘신바람나는 혁신 소식지’라는 의미로, 각 단어의 앞과 끝 글자를 조합하여 붙인 소식지 제호이다. 포항공장은 <신나지>를 통해 혁신활동 우수 사례 홍보와 각종 철강소식 등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군산공장, 변화혁신교육 실시
군산판재사업본부는 2월 16일부터 한 달간 협력사 직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변화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인 NEW PARADIGM 교육을 실시했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고착된 낡은 가치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공동체 문화를 확립하고자 시행됐다. 변화혁신 테마 교육은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촉진으로 직장 동료와 선후배 간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 내부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아스틸UAE, 후처리 설비 추가 도입
세아스틸UAE가 사업능력 제고를 위해 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이번 설비 투자는 플랜트용 강관 생산에 특화된 UAE 공장에 익스팬더(Expander), UT(비파괴 검사) 등 후처리 설비를 추가하여 제품 라인업을 API 규격 송유관까지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익스팬더 설비는 강관 내면에 수압을 가해 직진도와 진원도를 교정하는 한편, 확관 과정을 통해 철강재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세아스틸UAE는 플랜트 건설에 사용하는 고온, 고압의 배관용 강관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세아베스틸 **협력업체 종합 복지관 개관**
세아베스틸이 3월 29일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종합 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고용노동부 하현제 군산지청장을 비롯해 세아베스틸 윤기수 부사장, 설승욱 노동조합위원장, 협력업체협의회 신동일 회장 외 18개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9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협력업체 종합 복지관 건립에는 총 293억 원이 투입됐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1층에 사육장, 2층에는 화장실과 체력 단련실, 분임토의실, 안전 교육장 등이 마련됐다.

2012 신입사원, 배식 봉사활동 참여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17명이 3월 30일 첫 봉사활동 체험에 나섰다. 군산 역전경로식당을 방문해 배식을 돕는 이번 봉사활동은 나눔과 봉사 정신을 통해 긍정적인 인성을 키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역전경로식당은 장애인, 무의탁 노인 혹은 65세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무료 급식 시설로 매일 250~300명가량의 끼니를 책임지고 있다. 이날 신입사원들은 배식뿐만 아니라 설거지와 주변 환경 정리를 도우면서 나눔을 실천했다.



동호회연합봉사단, 버섯작업장봉사활동 참여
28명의 세아베스틸 동호회 연합 봉사단이 3월 27일 신애원의 버섯 작업장을 찾았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버섯 작업장은 군산 소재의 부랑자시설 신애원이 운영하는 곳으로, 버섯 재배를 통해 거둔 수익은 시설에 거주하는 수용인원의 용돈 마련에 보탠다. 동호회 연합 봉사단은 지난해 2월 창단 이후 정기적으로 버섯 작업장을 찾아 참나무를 옮기거나 종균 삽입, 드릴 작업, 버섯 거치대의 오래된 나무 제거 등을 대신해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다.

세아특수강 **포항공장,포항시식목일행사참여**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임직원들은 3월 30일 포항시가 주최하는 식목일 행사에 참여했다. 임업 관련 단체, 시민 등 약 1,00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나무심기를 통해 산림의 소중함을 배우는 행사였다. 행사 장소인 포항 북구 송라면 지경리 일대는 2011년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산림이 소실된 피해지이다. 이날 지경리 일대에 심겨진 나무는 약 9,000여 그루에 달한다.



한국번디, 모범 납세 표창 수상
한국번디가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어 3월 5일 평택세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최된 기념식에는 세정 유관 기관 및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정일 평택세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모범적인 납세로 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해준 납세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한국번디를 비롯한 성실 납세 기업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세아에샵 **ASME QSC인증 취득**
세아에샵이 미국기계학회(ASME; 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로부터 원자력 소재 제조업체임을 인증하는 QSC(Quality System Certificates for Nuclear Material Organizations)를 취득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세아에샵은 품질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을 공고히 하며 원자력 재료 부문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특히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거둔 결과로 의미가 크다.



S-TPM 발대식 추진
세아에샵은 3월 16일 사내 대강당에서 공장장, 생산팀장, 현장 관리자,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TPM(SeAH ESAB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발대식을 가졌다. 근로 현장의 새로운 혁신활동 출발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고효율 생산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경제 및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지식 근로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었다.

세아메탈 창립 18주년 기념 시상식 개최

세아메탈은 3월 23일 창원 본사 강당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갖고 회사 발전을 위해 우수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 대해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특별히 상공회의소상을 받은 생산기술팀 곽홍석 사우를 비롯해 모범상 3명, 최고/최다 제안상 1명, 제안상 11명, 제안 우수상 1명, 제안 우수 소그룹 1팀 등 다수의 수상자가 호명됐다. 세아메탈은 직원들의 경쟁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제안 시상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와이어 및 튜브 전시회 참가

세아메탈은 3월 26일에서 3월 30일까지 5일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국제 와이어 및 튜브 전시회에 참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와이어 및 튜브 전시회로 전 세계 53개국, 2,442개의 회사가 참여하여 뒤셀도르프 전시장에서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1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세아메탈 부스를 찾아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 14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 세아메탈은 2004년부터 5회 연속 참가하고 있다.

강남도시가스 초등학교생 ‘가스안전교실’ 개최

강남도시가스가 3월 22일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2년 가스안전교실을 시작했다. 가스안전교실은 권역 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총 40회가량 진행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스와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법을 배우고,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안전 점검표’를 배포하여 직접 자신의 집의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누출여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



세아로지스 QSS혁신허브 참여

세아로지스는 4월부터 제2기 대한민국 혁신허브(QSS혁신허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QSS(Quick Six Sigma)는 포항철강산업단지를 혁신 허브로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혁신 모델을 만들고자 포항시와 포항철강관리공단, 포스코가 주관이 되어 만든 프로그램이다. 포항시는 QSS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체별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변화관리 교육, 혁신리더 양성, 안전 진단 및 현장 지도를 추진하게 된다.

인천보세창고, 인센티브 지급업체 선정

세아로지스 인천물류센터는 4월 인천광역시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주관하는 ‘2011년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업체’로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보세창고 물동량 기준으로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 반입 처리 실적이 상위 40위 안에 랭크됨과 동시에, 전년 대비 5% 이상 실적이 증가한 보세창고로, 인천물류센터 증대에 기여한 업체를 심사, 선정하여 매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인천광역시 항만 활성화 정책이다.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세아홀딩스

- 입사**
이승현 경영진단파트(전입)
김철홍 미래전략파트
박대식 사업개발1파트
장진수 사업개발2파트

세아제강

- 결혼**
유한열 광관2 시험검사반
- 출산**
박문규 창원 품질경영팀
최현규 군산 생산2팀
천지성 포항 품질경영팀
유광문 포항 생산1팀
- 조의**
조인수 광관2 생산팀(부친)
이민희 본사 자금팀(조부)
김진각 창원 품질경영팀(모친)
김창덕 포항 물류팀(장인)
안창현 포항 업무지원팀(조모)
박기환 포항 생산1팀(장인)
조선웅 포항 생산2팀(부친)
김해중 포항 생산2팀(모친, 장인)

세아베스틸

- 결혼**
이승현 품질보증팀
이승아 재무팀
김건동 대형압연팀
강상윤 단)품질보증팀
김찬수 인재운영팀
황남규 공정연구그룹
문병길 제강팀
김준철 일반단조팀

- 조의**
김영택 소형압연팀(부친)
강병인 소형압연팀(부친)
심태완 대형압연팀(부친)
이성만 압연설비팀(부친)
이강래 제강팀(부친)
임완택 소형압연팀(모친)
강병철 제강설비팀(모친)
박현규 제강설비팀(모친)
최영태 소형정정팀(장인)
김용철 일반단조팀(장인)
김용현 소형압연팀(장인)

세아특수강

- 입사**
윤필주 회계파트
우성정 충주 물류자재팀
권영덕 충주2 생산팀
이맹상 충주2 생산팀
- 출산**
원도희 포항 생산팀
김근우 포항 생산팀
- 조의**
신영선 포항 생산팀(부친)
최재영 포항 생산팀(백모)
최태윤 포항 생산팀(백부)

한국번디

- 결혼**
최성운 평택 구매팀
이선호 광주 생산팀
- 출산**
손영민 광주 품질경영팀

- 조의**
류제준 광주 생산팀(숙부)
장형래 광주 생산팀(처형)
황창주 광주 생산팀(부친)

세아에샵

- 입사**
이연실 해외영업팀
- 출산**
박영욱 품질경영실
윤정학 생산팀
- 조의**
배경환 설비관리팀(부친)
권익재 구매물류팀(장인)

세아메탈

- 입사**
이석진 원주 생산설비팀
이상규 원주 생산설비팀
곽정훈 원주 생산설비팀
- 결혼**
서현일 창원 생산혁신팀
이혜경 창원 품질경영팀
- 출산**
황인걸 원주 생산설비팀
김종훈 창원 경영기획팀

세아이엔티

- 입사**
강학봉 터보 태양전지개발팀
김종우 플랜트 기술영업3팀
이상용 플랜트 기술영업4팀
한민구 터보 품질보증팀
양진모 플랜트 PM팀

- 결혼**
박인욱 화공 생산1팀
- 출산**
박진희 화공 품질보증실
박명철 화공 생산1팀
오영진 플랜트 설비기술팀
지명준 화공 품질보증실
강학봉 터보 태양전지개발팀
- 조의**
최희정 터보 태양전지개발팀(부친)

강남도시가스

- 출산**
유명진 공급관리팀

세아로지스

- 입사**
이소영 안산영업소
김민지 수출입통관팀
- 결혼**
이경진 수출입통관팀
- 출산**
박민규 운영기획팀

세대스틸

- 출산**
김종민 광관영업팀

QUIZ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주세요.

〈정답표시는 옆사에 해주세요〉



*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 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라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SeAH Reader's

‘세아와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나눔 캠페인’을 통해 일상의 지출을 줄여 뜻 깊은 기부를 하시는 세아가족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대부분 기부라고 하면 큰돈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야끼고 절약하여 성심과 성의를 다해 기부하는 것도 진정한 나눔의 실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옥남** 경기 광명시 철산3동

‘뿌리 깊은 나무’의 이순신 장군의 기록과 지혜에 대한 칼럼에서 ‘보고서는 종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쓰는 것이다’를 읽고 글을 쓸 때에 얼마나 진솔하게 쓰는가,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쓰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신분주** 경남 양산시 물금읍

공예체험 칼럼을 잘 보았습니다. 예전부터 아이들과 꼭 한번 같이 가서 생활하기만 드는 체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네요. 사보를 보며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즐거운 체험을 꼭 추진해 볼까 합니다. 또한, 각 사별 불우이웃돕기 관련 내용을 보면서 주변에 혹시 모를 불우이웃이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배정환** 세아메탈 창원공장

지난 퀴즈 당첨자

신분주 경남 양산시 물금읍
김옥남 경기 광명시 철산3동
신순자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강미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배정환 세아메탈 창원공장
이현형 전북 군산시 월명동
장순희 경기 남양주시 와부 덕소
박순원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배재훈 경북 대구시 남구 이천동
이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지난호 퀴즈 정답〉

〈세아가족〉 사보기자

전태원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최영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김동기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서울)
이태원 세아특수강 혁신파트(본사)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관리팀

손은숙 세아에셋 경영지원실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이상기 세아인앤티 플랜트사업지원팀
김민구 세아엠앤에스 서울사무소
이근기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권용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김승렬 드림라인 기획팀

당신의 생활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새로워질 것이다
빠르고 안락한 자동차와 고속철이 새로워질 것이다
더 거대한 선박이 바다를 누빌 것이며
더 놀라운 설비시스템과 IT기술 및 에너지산업이
당신의 생활 속에서 새로움을 더해줄 것이다
이것이 세아 종합 인프라기업으로 혁신해 나간다는 증거다

SěAH 세아

세아홀딩스 · 세아제강 · 세아베스틸 · 세아특수강 · 한국번디 · 세아ESAB
세아메탈 · 세아M&S · 세아네트웍스 · 강남도시가스 · 세아로지스